

이연식. 치명적 미술 - 음란함에 대한 고찰 3장

“숨겨지고 드러난 그것”

1. 보이지 않는 작품

좀처럼 보이지 않는 작품

- (키아로스타미 감독) “사랑을 카피하다”

왜 그림은, 미술품은 드러나지 않는가?

(구로사와 아키라) “추문”

끝내 드러나지 않는 그림, 존재하지 않는 그림.

- “누드모델”

- “미지의 결작”

- “타원형 초상(비브르 사 비)”

그림은 보이지 않았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!

2. 검열 오디세이

권위주의 정권 시절 외국 잡지의 정치적으로,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색칠.

- 영화 "닥터 지바고" 속의 '인터내셔널 가'
- 영화에서 성기를 가린 검열의 역사.

3. 보이는 것에 대한 금기

- 남자아이들의 '고추'
- 담배에 대한 강박.
- 새로운 금기의 등장.
- 금기에서의 점진적 해방이라는 역사 인식에 대한 의문.

4. 성립되지 않는 이미지

- 금지된 이미지가 아니라 아예 이미지가 되지 않는 것.
- 어떤 것이 은폐되었는지를 보면 그 시대, 그 공간을 더 잘 알 수 있다.
- 예컨대 키스에 대한 관념
- 조선시대에는 키스가 없었다?
 - 오늘날 TV를 보는 한국인과 그 옛날 조선인이 키스에 대해 갖는 관념의 차이.

5. 남성의 성기

- 음모(陰毛)에 대한 강박
- 가려진 그림
- 레다와 백조
- 당당하게 드러난 성기